

동행

SEPTEMBER 2022

* Special Greeting

- 지반공학회장 한가위 인사

* 지반공학회 소식

- 제4차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
- 지반공학회 지역위원회 방문
: 광주·호남지역발전 특별위원회
- ICPMG 조직위원회 실무회의
- 전문기술/운영위원회 소식
: 기초기술위원회

* 만남

- 회원 인터뷰 : 김우종 회원 (수성엔지니어링)
- 회사 탐방 : (주)뉴월시스템

Special Greeting

- 지반공학회장 한가위 인사

지반공학회 소식

- 제4차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
- 지반공학회 지역위원회 방문
 - 광주· 호남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간담회
- ICPMG 조직위원회 실무회의
- 전문기술/운영위원회 소식
 - 기초기술위원회 PF공법 대형실물기초 재하시험 참관기

만남

- 회원 인터뷰 : 김우종 회원 (수성엔지니어링)
- 회사 탐방 : (주) 뉴월시스템

Event / Quiz

- 9월호 표지 사진 이야기
- 9월호 Quiz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장 정문경입니다.

‘동행’ 9월호를 여러분께서 받아 보실 무렵 한반도는 기록적 위력을 지닌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 예보되었습니다. 폭우와 강풍에 부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YGE 포럼위원회와 북미지역지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4차 US-Korea Workshop이 있었습니다. ICGE22와 연계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우리 학회 차세대 젊은 지반공학인의 활동의 농도가 진해지고 외연 또한 넓어짐을 보며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9월에는 굵직한 학술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일에는 동남권지부 기술강좌가 부산광역시청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19일부터 한 주 동안에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지반공학회 TC104 Physical Modelling의 국제학술대회인 제10차 ICPMG가 KAIST 문지캠퍼스에서 막을 올립니다.

동일 장소에서 21일과 22일 양일에는 가을학술발표회가 개최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특히 성공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대비하여 해상연약지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해외 전문가 초청강연과 특별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단이 지역으로 찾아가 회원님들을 뵙는 지역방문은 9월에도 진행합니다. 대전·충청과 광주·호남을 거쳐, 1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강원지역으로 이어갑니다.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결집력과 단단한 활동이 우리 학회의 힘이며 큰 자랑입니다.

곧 추석입니다. 늘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풍성한 한가위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4차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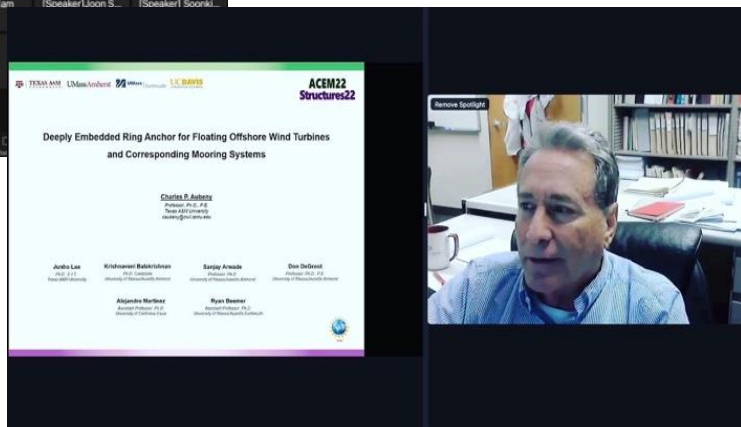
on Advancements in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후기 - by 장일한 위원장

우리 학회 YGE포럼위원회(위원장: 장일한)와 북미지역위원회(North America Regional Committee; 위원장: 은종완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이 올해 그 네번째 순서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존에는 COVID-19의 여파로 Zoom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가 올해는 앤데믹을 염원하며, The 2022 World Congress on Advances in Civil, Environmental, and Materials Research (ACEM22) - The 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ICGE22)의 참여 심포지엄(Advancements in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형태로 개최되어 ACEM22에서 제공하는 venue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 8월 18일(목) 진행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행사는 한국시간 기준 오전 9시에 한국지반공학회 정문경 회장님의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YGE포럼위원회와 북미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 지반공학인들의 발전적인 교류와 협업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이제는 국제리더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는 회장님의 바램은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 모두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논문 발표는 한국시간 기준 오전 3개의 세션, 오후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특정 주제를 한정 짓지 않고, 최근 각 연구 주제들에서 혁신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들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걸맞게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연구들이 많이 소개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의 논문이 접수되어 부득이 논문 당 발표 시간을 8분으로 제한한 점이 워크숍 진행 내내 무척 아쉬웠습니다. 전체 참가 규모는 현장 30여명(아주대, KAIST, 군산대, 경상대 연구진 등)과 온라인(Zoom) 실시간 접속 20명(주로 북미지역위원회) 등 총 50명 규모로 집계 되었습니다.



* 정문경 회장 축사



* Prof. Charles Aubeny (Texas A&M) 발표



* 행사 전경



* 현장-온라인 하이브리드 토론의 모습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오만 등에서 총 45편의 논문이 접수 및 발표되었으며, 우리 학회 주요 참가자 명단(존칭 생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미지역위원회

김성희(U. of Georgia), 김용재(Lamar U.), 김진기(Georgia Southern U.) 나석준(Marshall U.), 남순기(Georgia Southern U.), 송정락(U. of Nebraska), 안진우(U. Mount Union), 은종완(U. of Nebraska), 이준호(Texas A&M),

▲ 한국지반공학회

고준영(충남대), 권태혁(KAIST), 김도현(한밭대), 김병민(UNIST), 김영욱(명지대), 김재홍(동신대), 김형주(군산대), 남부현(경희대), 도진웅(경상대), 박도원(서울시립대), 송기일(인하대), 임현성(한화건설), 장일한(아주대), 장준봉(동아대), 정성훈(순천대), 조계춘(KAIST)

아울러 이번 제4차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의 또 다른 추진 성과로는 워크숍 주요 발표 논문들을 대상으로 국제저널(Geomechanics and Engineering, JCR Impact Factor 3.201) 특별호(Special Issue) 출간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지반공학회 젊은 회원들의 우수한 연구 내용을 수록한 특별호는 2023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제4차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 현장-온라인 기념 촬영

회장단 지역방문 간담회

8월 13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정문경 회장 및 백용 대외협력부회장과 함께 광주·호남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지역방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조촐하게 치러졌던 회장단의 지역 방문 간담회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본회에서 정문경 회장과 백용 부회장, 지회에서 김대현 위원장을 포함하여 8분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정문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고, 김대현 위원장(조선대학교)이 광주·호남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2022년 활동내용과 계획을 보고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주·호남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더욱 큰 발전과 도약이 기대됩니다.

* 간담회 논의 사항

▲ 학회 차원의 새로운 시도인 젊은 지반공학자들의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좋다.

▲ 60세 이상의 시니어 학회 회원 모임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 지역발전위원회의 활성화가 증대되도록 본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발전위원회와 본회의 교류로써 “서남권 연약지반 세미나”와 같은 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회에서도 많은 참석 바란다.



*왼쪽부터 김재홍 (동신대 교수), 백용 부회장, 서재우 (GS지사장), 정찬욱 (정진이엔씨 대표), 김대현 위원장(조선대 교수), 백원진 (전남대 교수), 장용채 (목포해양대 교수), 정문경 회장, 김영상 (전남대 교수), 정성훈 (순천대 교수)

ICPMG 2022 조직위원회 실무회의

제10차 지반물리모형실험 국제학술대회 (ICPMG 2022)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김남룡) 지난 8월 3일부터 3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학술 프로그램 세부 일정을 확정하였고, 국내외 지반공학자들에게 폭넓은 교류와 친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소셜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 와인 시음 행사

특히 지난 17일 학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회의 후에는 Schofield Lecture 후 진행될 welcome reception에 제공할 와인 시음회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한달 간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지난 2년간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ICPMG 2022에는 총 100여명의 외국 연구자들을 포함 약 300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ICPMG 2022 조직위원회 실무회의의 전경 (학회사무실)



ICPMG 2022 조직위원회 실무회의의 온라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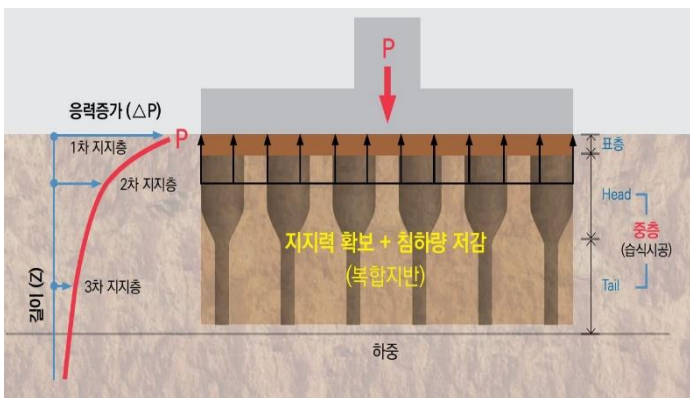


기초기술위원회

- PF공법 대형실물기초 재하시험 참관기

기초기술위원회(위원장 송명준)는 지난 7월27일(수) PF공법(Point Foundation, 변단면 형상의 지반고화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여 기초로 활용하는 공법, 건설신기술 816호)의 대형 실물기초 재하시험 및 하중전이 시험의 참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실물기초 재하시험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실제 독립기초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의 대형 재하판(가로 3.6m x 세로 3.6m)을 이용하여 평판재하시험(Zone Load Test)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동시에 PF 개량체 내부에 깊이별로 설치된 변형률계를 통해 하중전이 양상도 측정하였습니다. 재하시험 행사는 PF공법 기술보유사의 재하시험 계획 소개 이후 기초기술위원회 위원들의 재하시험 참관, 질의응답, 결과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PF공법 개념도



* 실물기초 재하시험 전경

동일한 크기의 원주형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DCM 공법과 달리, PF공법은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상부는 직경이 크고 하부는 직경이 작은 변단면 개량체를 형성하여 복합지반 개념의 기초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번 실물기초 재하시험은 소형 재하판이 아닌 대형 재하판을 이용하여 실제 기초와 동일한 크기의 기초에서 재하시험을 시행함으로써 PF공법의 실제 거동을 직접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하시험을 실시한 독립기초 하부 원지반은 PF 상부 단면 기준으로 개량체 설계기준강도 2.0MPa 이상이 발현되도록 충분히 양생 후 재하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형 재하판은 철근콘크리트로 별도 제작 후 현장에 반입하였고 반력은 Earth Anchor를 이용하였으며, 재하 방법은 ASTM D 113 Procedure A, Quick test 방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최대시험하중은 설계하중 (300kN/m^2)의 1.75배에 해당하는 6,685kN까지 재하하였으며, 시험 결과 설계하중에서 15.0mm의 침하가 발생하여 충분한 사용성(Serviceability)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기초기술위원회에서는 구조물기초와 더불어 기초지반의 강화를 통한 구조물 지지성능 개선 관련 기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업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당 기술을 소개하고 성능 확인 이벤트를 적극 공유할 계획입니다.



* 재하시험 후 기념촬영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수성엔지니어링 지반부에 근무중인 김우종 상무입니다. 대학원에서 지반공학을 전공한 후 현재까지 약 20여년 간 지반공학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업에 투입되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터널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하노이의 케넷철도 합동사무실



수성엔지니어링에 근무중이신데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수성엔지니어링은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감리 등 전분야의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설계사입니다. 30여년 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일반입찰은 물론 기술형입찰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쌓아가는 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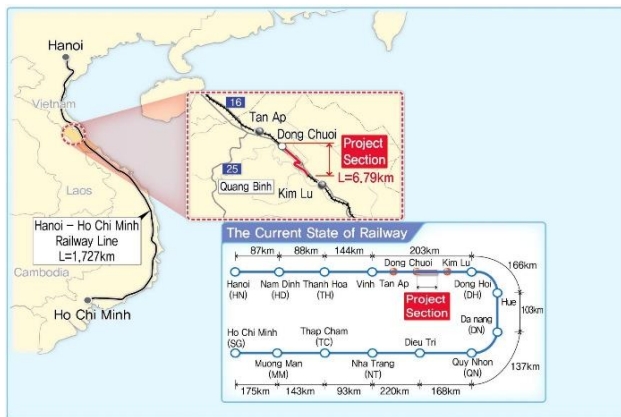
* 부산신항 북권 배후단지 TK주주 및 KTA 수상



현재 베트남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진행 중 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베트남에는 북쪽 하노이와 남쪽 호치민을 잇는 남북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만들어져서 현재 선형개량이 필요하며, 이 중 개량이 시급한 6.8km구간의 선형을 개량하며 터널 2개소를 신설하는 과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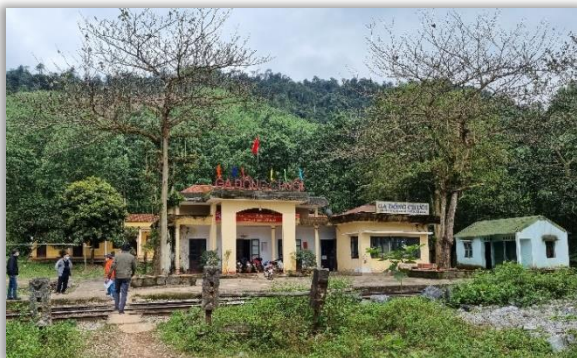
* 베트남 케넷철도 개량사업 지역인 팡빈성



베트남은 보통 연약지반 프로젝트가 많은데 터널도 많이 시공되고 있나요?

김

베트남에는 현재 3개의 터널이 운영중이며 1개의 터널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도로터널로, 철도터널은 사례가 전무합니다. (메트로 제외) 따라서 현재 설계중인 터널이 베트남 최초의 철도터널이며 이로 인해 발주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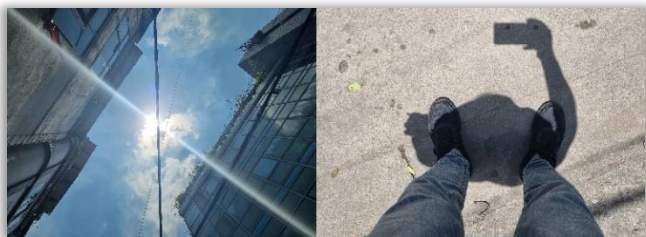
* 과업구간 내 Dong Chuoi역 현장답사



해외근무시 한국과 다른 환경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듯 한데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김

아침 8시면 벌써 30도를 넘는 높은 기온이나 한 낮의 강한 햇볕도 한국과 다르지만, 무엇보다 하노이는 날씨가 매우 습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평균 84%의 높은 습도와 한여름 높은 기온이 더해지면 야외에 있지만 한증막 안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태양의 고도가 90도 되는 날



회사소개에서 수성엔지니어링의 기술형 입찰 성과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근래 수행하신 인상 깊은 TK 프로젝트 중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김

화태-백야 1공구 TK의 연장 910m 현수교가 가장 인상깊습니다. 해상교량에 많은 설계경험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장교이며 현수교의 경우 국내사례가 희소하여 당시 많이 고민하며 설계하였습니다. 국내 두번째로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를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입찰 평가결과도 좋아서 무척 보람이 있었던 프로젝트로 기억됩니다.



* 지중정착식 앵커리지를 적용한 화태-백야 1공구 현수교



마지막으로 해외 장기 체류중이신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김

틈날 때 마다 맛집탐방과 베트남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에는 요리연구가 백선생님이 추천하는 맛집도 있고 외국인은 잘 모르는 로컬 맛집들도 많아 찾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 로컬맛집 옥토사이공과 백선생님 추천맛집 퍼짜주엔

그리고 여행을 통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기에 여행은 베트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최근에 다녀온 사파에는 소수민족인 몽족이 살고 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월남 전 당시 미국을 도왔던 이유로 홀대 받는 몽족의 슬픈 역사에 대하여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 베트남 사파 노트담성당 앞의 몽족 아이들

해외에서 설계 업무를 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우종 회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학회 뉴스레터지는 일반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회사무국 이메일로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kgssmf@hanmail.net

1. 회사 소개

자연과 공존하는 기업

친환경 옹벽시스템 개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주)뉴월시스템은 환경 친화적인 보강토옹벽 전문 건설회사로서 보강토옹벽 공법이 국내에 도입된 초창기부터 약 25년간 쌓아 올린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기관 및 개성공단까지 진출하여 수많은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띠형보강재를 이용한 보강토옹벽공법” 및 “강성그리드를 사용한 보강토옹벽공법”을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에 등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완벽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뉴월시스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과 시공성이 우수하며, 인간중심적인 친환경 옹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신의를 기본으로 모두에게 신뢰 받는 정직한 기업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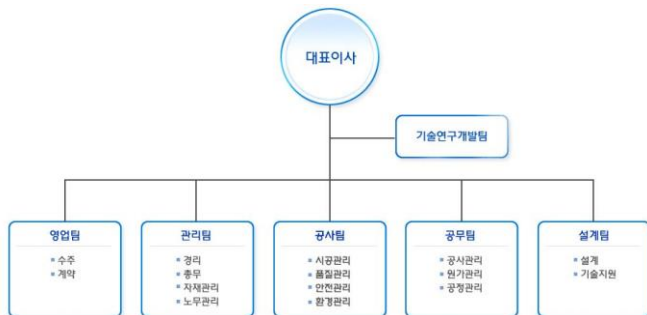
호수 옆 보강토옹벽을 이용한 도로공사



교대 접속부 보강토옹벽



2. 회사 조직



3. 회사 연혁

1996. 07 (주)K.R WALL 시스템 설립

블록식 보강토옹벽 설계 및 시공 전문

2000. 02 사명 변경

(주)뉴월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003. 10 안전관리 우수현장 동상 수상

(한국산업안전공단)

2005. 07 본사 이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08. 01 식생옹벽 외 6건 특허 취득

2009. 01 ISO 9001 인증

2009. 07 ISO 14001 인증

2009. 08 INNO-BIZ 인증

2009. 11 식생기능을 갖는 보강토옹벽 특허 취득

2010. 05 PN 빗물저류조 특허 취득

2010. 06 비점오염원처리 특허 취득

2012. 12 경기 도지사 표창장 수상

2015. 08 자립식 가설 흙막이 시공방법 특허 취득

4. 식생 보강토옹벽

본 공법은 전면이 수직에서 3.5도까지 식재가 가능한 블럭식 보강토옹벽으로서 식재 공간이 넓고 깊으며, 후면이 열린 상태로 뒷채움 토사와 연결되는 구조로서 수목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옹벽 전면을 빠른 기간 내에 수려하게 녹화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섬 방지에 효과적인 친환경 보강토옹벽 공법입니다.

담쟁이 덩굴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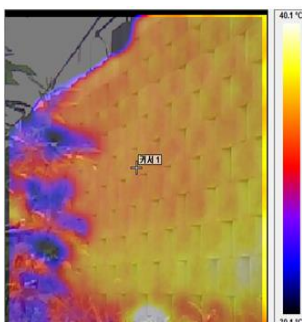


식재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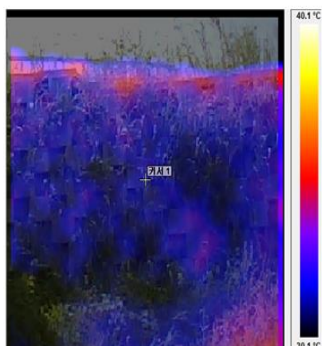


2년 후 전경

일반옹벽과 식생옹벽에 대한 열화상 테스트 결과



기존 보강토옹벽 적용 현장



식생 보강토옹벽 적용 현장

5. 띠형 섬유보강재를 이용한 보강토옹벽

보강토옹벽 공사 중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최대 입경이 19mm이하의 양질의 토사를 뒷채움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상태의 토사는 대부분 입경이 큰 골재를 함유하고 있어 체가름을 하여 양호한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려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심도 지하터널 및 산악지역의 도로건설 시 직선화 시공을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터널공사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암버력을 뒷채움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공법은 연결핀으로 일체화된 블럭과 수동 저항부, 마찰 저항부가 일체로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재가 조합 축조되어 자갈 및 암버력이 혼합된 뒷채움재에도 보강재 손상을 방지하고 지지저항력을 극대화한 보강토옹벽 공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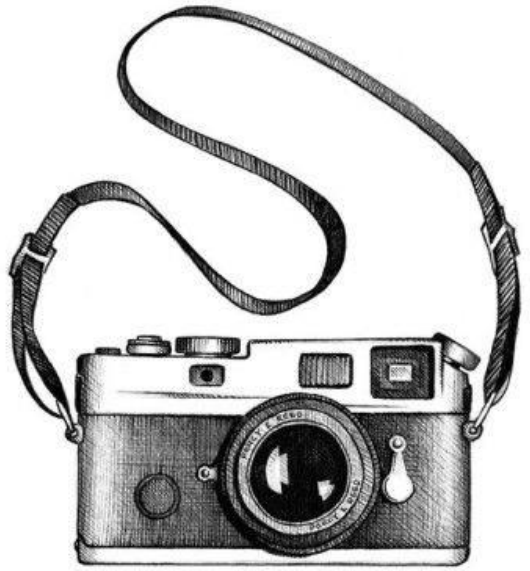
제품 사진



시공 사진



표지 사진 이야기



지반공학회 NEWS LETTER 9월호 표지 사진은 서원석 홍보전담이사(GS건설)의 사진입니다.



호주 멜버른의 NEL 프로젝트 관련 현장 출장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멜버른 지역은 사암과 이암 등 퇴적암들의 층리가 발달되어 있고 습곡이나 화성암계열의 Dyke 등이 부분적으로 관입 되어 있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각 층리가 단단하게 닫힌 연속체로 해석할 경우와, 각 층리(bedding plane)를 하나하나의 불연속체로 취급하여 해석할 경우에 결과가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설계사와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철도 바로 옆 사면의 층리와 습곡들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인데, 별도의 사면보호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에서 영구사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표지 사진 모집합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반공학회 NEWS LETTER “동행”의 표지는 회원분들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행가서 찍은 사진, 일하면서 찍은 사진, 30년 전에 찍은 사진, 오늘 찍은 사진 뭐든지 좋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학회 이메일(kgssmfe@hanmail.net)로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보내주시고 메일 제목에 “뉴스레터 표지사진 응모”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커피음료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Quiz

지반공학회 NEWS LETTER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회원들의 소통을 위한 비공식 내부 잡지입니다.

Quiz는 각 월호에 실린 내용을 읽으셨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Quiz에 대한 답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1분과 그리고 이외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분께 모바일 커피 음료권을 보내드립니다.

답변을 보내실때에는 소속과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022년 8월호에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uiz :

김우종 회원이 현재 그 나라의 첫 철도터널(메트로제외)을 설계하고 있는 동남아 나라는 어디인가요?

- ① 라오스 ② 미얀마 ③ 베트남 ④ 캄보디아

정답 보내실 곳 : kgssmfe@hanmail.net

이메일 제목 : 9월 Quiz 정답

8월 Quiz 정답 : ③ 리비아



정답자 분들에게 스타벅스 카드 e-Gift 1만원권을 문자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채광석 회원(GS건설)

송용재 회원(경동엔지니어링)

서진석 회원(계룡건설산업)

김태효 회원(동아지질)

광고

2022 ICPMG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icpmg2022.org>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ysical Modelling in Geotechnics 2022

KAIST, Daejeon, Korea / 19-23 September, 2022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ysical Modelling in Geotechnics
제10차 지반물리모형실험 국제학술대회

일자 2022년 9월 19일 ~ 23일
장소 KAIST 문지캠퍼스 강의동



Topics

- Physical modelling facilities and equipment
- Scaling principles and modelling techniques
- Sample preparation and characterisation
- Instrumentations and measurements
- Physical/Numerical interface and comparisons
- Soft ground and improvements
- Offshore geotechnics
- Earthquake related problems
- Geohazards
- Underground structures and pipelines
- Excavations and retaining structures
- Foundations
- Dams and embankments
- Education
- Applications in engineering practice
- Others

Organized by  **한국지반공학회**
KOREAN GEOTECHNICAL SOCIETY

Sponsored by  **대전마케팅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ICPMG 2022 사무국 #402, Building D, 17, Techno 4, Yuseong-gu, Daejeon, 34013, Korea
T. 042. 489. 7070 / F. 042. 489. 7071 / E. secretariat@icpmg2022.org

"ICPMG 2022 링크" <http://icpmg2022.org/>

광고

2022 가을학술발표회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 Fall Geotechnical Engineering Conference

2022 한국지반공학회 가을학술발표회

· 2022.9.21(수) ~ 22(목)

· KAIST 문지캠퍼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초청강연 및 특별세션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학술발표회
병행



제10차 지반물리모형실험
국제학술대회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hysical Modelling
in Geotechnics 2022

이 사진은 우리학회 박병윤 회원(한국종합기술 상무)이 2015년 쿠웨이트 Sheikh Jaber Al-Ahmad Al-Sabah Causeway Project 근무 시 촬영한 Cap Rock 지층 전경이며, 학회 뉴스레터 '동행' 2021년 7월호 표지 사진이기도 하다.